

이정모의 ‘자연이 건네는 말’



스라소니가 사라졌다

“시라소니. 못난 호랑이 새끼라는 뜻이다. 과거 낭만 파 주먹 시대에 있어서 이 사람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이는 없었다고 전해져 온다. 중국 전역을 떠돌며 수 많은 강척들을 주먹으로 눕혔고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타기를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SBS의 ‘아인시대’는 2002~2003년 한국 최고의 인기 드라마였다. 53화에 시라소니가 처음 등장할 때 흘러나온 나레이션 첫머리다. 시라소니는 실존 강패 이성순의 별명이다. 드라마에서는 도움닫기 박치기인 공중고리와 달리는 열차를 자유자재로 타고 내리는 기술이 특기로 나온다.

아인시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패들을 멋지게 그린 드라마였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강패들이 항일 투쟁을 했다는 것처럼 미화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한국 강패가 일본 강패와 맞장을 뜨기가 했겠지만 어차피 한국 양민들의 등을 쳐먹던 놈들이었으니 말이다. 당시 드라마 아인시대를 바탕으로 만든 어린이용 만화책이 불티나게 팔렸는데 그 만화책을 보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찔했다.

시라소니도 마찬가지다. 전형적인 밀수꾼 이미지이지만 드라마에서는 김두한과 동급의 싸움꾼으로 나온다. 그를 독립운동가로 미화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다. 다만 이북 출신 잔혹한 조폭 서북청년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5·16 쿠데타 후 조직폭력배를 일제 검거할 때 시라소니도 체포되었지만 영락교회 신자들의 탄원으로 풀려났다.

드라마의 인기는 접어두고 시라소니가 못난 호랑이 새끼라는 나레이션은 첫 문장부터 틀렸다. 시라소니의 표준어는 스라소니다. 학명은 Lynx lynx. 고양이과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밤에 눈이 반짝이는데 이 특성을 표현한 이름이다. 스라소니는 북부 유라시아에 넓게 분포하는 중간 크기 고양이과 동물이다. 못나지도 않았다.

스라소니는 북쪽 숲의 침묵이 낯은 야수다. 은빛 겨울 햇살을 머금은 듯한 회갈색 털은 숲의 그늘 속에 연기처럼 스며들고, 두 귀 끝에 솟은 검은 털 뿔치는 바람이 흐르는 방향을 가리키는 축수 같다. 마치 얼음 속에 박힌 황금 구슬 같은 눈에는 수천 년의 추위와 기다림이 응축된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어쨌든 그 시라소니 말이야, 정말로 끝내주더구먼. 이거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 날짐승을 보는 것 같았어. 이쪽에서 나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공중을 펑픽 날라댕기는데! 야- 이젠 정말이지 환상이었어, 환상.”

드라마에 등장하는 또 다른 강패 임화수가 한 말이다. 실제로 스라소니가 그렇다. 어깨를 낮게 깔고 눈 속을 유영하듯 긴 다리로 걸음을 옮긴다. 앞다리보다 긴 뒷다리로 경쾌하게 걸으면서 눈길 위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듯 가볍게 걷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번에 사슴의 목을 재빨리 만큼 정확하게 달려든다. 스라소니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요함이다. 으르렁대지 않는다. 단지 거기에 있을 뿐이다.

스라소니는 주로 고도가 높고 바위가 많은 산림에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두대간을 따라 함경도에서

강원도까지 분포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분류상 관심대상종(Least Concern, LC)으로 평가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멸종된 종이다. 과거 수렵 기록과 민간전승에서도 등장하지만 1960~70년대 이후에는 실제로 잡았거나 관찰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스라소니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로는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이 꼽힌다. 백두대간 일대 개발과 산지 훼손, 수십 년 전까지 이어진 모피 채취를 위한 포획 등이 결정타였다. 그레도 의문이다. 스라소니는 중상위 포식자에 불과하기는 했지만 호랑이 같은 상위 포식자는 물론 늑대 같은 경쟁 동물도 어차피 사라진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야생 고양이과 동물은 삶이 유일하다. 아마도 서식지 감소와 함께 사냥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스라소니 멸종은 한반도 생물 다양성의 축소를 상징하는 또다른 사례다. 종다양성을 걱정하는 이들은 유럽과 러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스라소니를 국내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과연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다. 생태계는 여전한데 억지로 가져다 놓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태계 충돌과 유전적 이질성 같은 문제가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드라마 아인시대에 강패 이성순이 처음 등장하면서 그는 자신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근사한 대사를 날렸다. “내래? 시라소니야!” 이렇게 폼나게 스라소니가 한국 자연에 살아 돌아올 일은 없다.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의료칼럼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원장

대장암은 이제 더 이상 ‘노년층만의 병’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전체 암 발생률 2~3위, 암 사망률 역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흔하고 위협적인 질환이다. 특히 흡습관의 서구화,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40~50대 중년층뿐 아니라 30대 젊은 층에서도 점점 환자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대장암은 조기 진단과 예방이 가능한 암이다.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를 넘는 치료 가능한 암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다가오는 암’에 대한 경계심과 검진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대장암은 대장의 점막에서 시작되는 악성 종양으로 결장(소장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길)과 직장(항문 근처)에 생기는 암을 통칭한다. 무엇보다 대장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 두려운 점이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암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게되고 이미 전이 또는 림프절 전이가 발생해 예후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리 없는 침입자’ 대장암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배변 습관의 변화 (설사와 변비가 반복) ▲배변 후에도 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잔변감) ▲복통 또는 복부 팽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만성 피로감,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어떤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대장암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FAP),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HNPCC) 같은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하지만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붉은 육류 및 가공육 과다 섭취, 비만, 운동 부족,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 흡연·과음, 만성염증성 질환 등 후천적 생활습관 요인이다. 이런 요인들은 대장에 만성적인 자극과 염증을 유발해 결국 암세포로 이어질 수 있다.

대장암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과 조기 진단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분변잠혈검사(대변 혈액 검사)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검사를 통해 출혈 징후가 보이면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용종(선종)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면 대장암으로의 진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과 같은 존재로 대부분의 대장암이 용종에서 출발하므로 정기적인 내시경을 통

해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예방이다. 50세 이상은 5~10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을, 가족력과 유전병 등이 있는 고위험군은 40세 전후부터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대장암은 단지 병원 검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 식단 조절, 꾸준한 운동, 금연과 절주, 정기검진 등을 통한 우리의 일상 습관이 곧 예방의 첫걸음이다.

먼저 식단 조절에 있어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고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두부 등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게 좋다. 운동은 주 3~5회, 30분 이상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으로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흡연과 음주는 대장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의 주요 원인인기에 절제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내시경은 고통스럽고 번거롭다는 편견을 버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대장암은 ‘늦게 발견하면 생명을 위협하지만,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한 암’이다. 가장 확실한 대책은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이다.

‘아직 젊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40대부터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이 필요하며 가족 중 대장암 병력이 있다면 더 이른 나이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장암은 피할 수 있는 암이다. 우리는 조기 발견을 위한 선택만 하면 된다.

社說

복합쇼핑몰사업자 특급호텔 먹튀 안된다

광주에 5성급 특급호텔은 꿈일까. 전 방·일선방직 공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5성급 특급호텔 건립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광주신세계가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사업에 포함된 특급호텔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민선 8기 광주시는 방직공장 부지와 광주신세계백화점 일대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면서 랜드마크로 5성급 특급호텔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한 곳은 사업자가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른 한 곳은 축소된 계획을 제출했다.

방직공장 부지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는 당초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를 포함해 300실 규모의 49층 5성급 특급호텔을 건립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척되지 않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자측은 “해외 특급호텔 운영업체와 접촉했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선폣 나서는 업체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처음부터 특급호텔 건립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광주시는 호텔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6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확보해 뒀다고 하지만 돈 되는 사업만 하고 먹튀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사업자는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립으로 막대한 수익을 보는 대신 공익 차원에서 특급호텔 건립을 약속했는데 정작 사업 승인이 나자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 이행보증금을 내는 것이 호텔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광주신세계도 어제 광주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250실이던 특급호텔 객실을 200실로 축소했다.

방직부지 개발사업은 어제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는 냈지만 주거시설은 아직 인허가가 남아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만약 사업자가 특급호텔 건립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확보한 이행보증금 이외에 돈 되는 주거시설의 규모 축소 등의 방법으로 먹튀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무책임 ‘3각 협상’에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10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비노조원 운전기사와 전세버스를 투입해 운행률을 80%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노선에 투입된 운전기사의 피로도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의 핵심인 시내버스파업은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은 교통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불편으로 다가온다. 연일 찜통더위까지 이어지다보니 출퇴근 시민들은 물론 교통 약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파업의 원인인 임금협상은 답보상태다.

준공영제인 탓에 광주 시내버스협상은 노조와 사측 외에 협세를 지원하는 광주시라는 3자간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3자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뿐 상대편의 주장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는 당초 임금 8.2% 인상 요구에서 물러나

5% 인상안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사측은 파업 중단이 우선이고 2.5% 인상안부터 얘기하자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인 3% 인상을 노조가 수용하라고 요구할 뿐 중재자 역할에선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동시에 시민들을 상대로 운전원 임금 인상률과 시내버스 요금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시민들의 여론을 활용해 파업을 타결하고 이참에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300~400원 반 버스요금 인상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노사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원칙이지만 준공영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광주시의 조정자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더 이상 파업이 장기화 돼선 안된다. 필요하다면 시민들을 상대로 버스요금 현실화를 설득해 만성 적자 해법을 찾아야 한다.

無等鼓

‘노쇼(No-show)’는 원래 항공업계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예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나타나지 않는 승객을 지칭하던 말 이, 이제는 외식업과 공연·서비스 업계 전반에서 통용되는 개념이 됐다. 노쇼는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업주 입장에서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손실이며 그 피해는 소상공인일수록 더욱 크다.

더 큰 문제는 이 ‘노쇼’가 최근 광주·전남 등지에서 신종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앞세워 업주의 신뢰를 얻은 뒤 대리구매를 유도하거나 거짓 명를 유도하거나 거짓 명을 요구하고 연락을 끊는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광주에선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을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에 이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까지 사칭한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광주경찰이 뒤늦게 ‘노쇼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그 내용은 ‘주의하라’는 수준에 불과했다. 법적 구조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사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는 탓에 노쇼 사기에 악용된 계좌 조차 동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기해자는 범행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구조다.

노쇼 사기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악용한 기횡범죄라는 점에서 입법과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노쇼 사기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사칭·대리결제 유도 등 반복되는 수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건디다 못한 소상공인들도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노쇼 사기는 단순한 예약부도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죄”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입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예만은 사회적 약속이고 약속은 신뢰의 기반 위에 세워진다. 이 기분이 흔들리면 사회는 그만큼 취약해진다. 노쇼라는 단어가 더 이상 우스갯소리나 소상공인의 애환으로 남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와 공권력이 나설 차례다. /박진표 경제부장 lucky@

기 고

KEEP GWANGJU WEIRD



김국 광주관광공사 MICE운영팀장

대학 시절, 한 교수님이 들려주신 인상 깊은 수업 철학이 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더 낮추라는 것이다. 실제로 갓 입학한 새내기들과 함께한 수업에서 교수님의 조용한 목소리는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고 강의실의 공기는 자연스레 집중의 분위기로 전환되는 신기한(?) 현상을 경험했다.

‘KEEP AUSTIN WEIRD’ 미국 텍사스주 소도시 오스틴은 이 기이한 구호 하나로 자신만의 색을 각인시켰다. 이는 단지 외곽 문화를 권장하자는 뜻이 아니라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철학이며 시민 중심의 지역 정체성 선언이었다. 그 중심에 있는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는 매년 봄 개최되는 음악, 영화, IT, 예술이 융합된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오스틴을 단숨에 글로벌 창의도시 반열에 올려놓았다.

SXSW는 단순한 콘텐츠 축제를 넘어선다. SXSW는 음악, 영화, 테크놀로지,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글로벌 문화 실험장이며 매년 수십만 명의 전 세계 관람객과 창작자, 투자자를 불러들여 지역경제에 수천억원 규모의 파급효과를 낳는다. 열흘 남짓 개최되는 행사에 이러한 가공할 경제적 효과라니 어떤 대단한 비결이라도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이 강조한 성공요인은 비교적 심심하다. “우리끼리 즐기면, 남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광주 역시 이런 전략이 절실하다.

한반도의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에 위치한 광주는 음식과 예술, 인권과 청년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5월말부터 6월초까지 2주간 개최된 광주푸드위크, 스트릿컬처페스타는 광주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행사였다. 첫째 주 광주식품대전과 주류관광페스타, 티&카페쇼가 김대중센터 전시장을 찾은 2만여명의 참관객의 입과 눈을 즐겁게 했고 오비맥주와 함께한 광장문화행사는 즐거움을 증폭시켰다. 둘째 주 배틀라인인X와 랫츠폴로피3.0은 자유와 저항을 상징하는 비주류문화를 바탕으로 행사 시기와 더불어 장소까지 통합된다면 향후 광주를 대표하는 융합형 도시 축제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했다.

올해 하반기 광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 올해로 개최 20주년을 맞은 ‘광주 ACE FAIR’는 전시·컨벤션 중심의 행사를 넘어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할 계획이다.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한 인터랙티브 공연, AI 기반의 VR·XR 등 체험형 뉴미디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ACE FAIR을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융복합 페스티벌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는 광주가 지역의 고유한 창의성과 기술, 예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KEEP GWANGJU WEIRD’ 단지 오스틴을 따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도시만의 고유한 색을 인정하고 시민의 창의성과 일상을 존중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하나의 축으로 세우는 관광 철학이자 도시 전략이다.

광주는 이미 충분히 독특하다. 다만 그 이상함(?)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키워나갈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외부로 향해 목청 높이 외치기보다 시민 스스로가 열광하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었기에 SXSW는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었다.

소리를 키우는 대신 중요한 메시지를 담담하게 던졌을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며 우리끼리 먼저 즐기면 광주는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다. 마치 조용히 말을 낮춘 교수님의 수업처럼 진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는 결국 주목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광주의 매력을 어떻게 외부에 알릴지 고민해왔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목소리를 키우는 대신 우리만의 진정한 즐거움에 집중하자. 광주 시민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콘텐츠야말로 가장 강력한 관광 자원이다.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  |                                         |  |
|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시 업 국 220-0541 |  |
| 편 집 부 220-0649                                                 |  | 〈FAX 222-8005〉   〈FAX 222-0195〉         |  |
| 정 치 부 220-0634                                                 |  |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  |
| 경 제 부 220-0648                                                 |  | 〈FAX 222-0195〉   〈FAX 222-0195〉         |  |
| 사 회 부 220-0664                                                 |  |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  |
| 제 2 사 회 부 220-0680                                             |  | 〈FAX 02-773-9335〉                       |  |
|                                                                |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